석가모니, 화생(化生)한 화신불일 뿐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⑭ 구원실성(久遠實成)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여래의 참다운 말을 믿고 바로 알라."

이 말을 세 번을 거듭하여 말하였다.

이때 보살들의 무리 가운데 미륵이 선두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받들겠나이다."

미륵도 이렇게 세 번을 거듭 말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이 세 번이나 간청해 마지않는 것을 아시고 온갖 세상의 천신, 사람, 아수라 모두에게 이르셨다.

"지금 석가모니불이 석가족의 궁전에서 가만히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 되었느니라. 비유컨대 5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삼천대천세계를, 설사 어떤 사람이 부수어 작은 티끌로 만들어, 동방 5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세계를 지나 티끌 하나를 떨어트리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자꾸 가서 이 티끌들이 다할 때까지 한다면,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세계들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미륵보살 등이 같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세계가 한량없고 가없어서 헤아려서 알 바 아니며, 또 마음으로 생각해도 미칠 바 아니오니, 일체 성문, 벽지불의 샘이 없는 지혜로도 능히 사유해 그 한계를 알 수 없으며, 저희가 물러나지 않는 수행의 지위에 있다 해도 이 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바이오니, 세존이시여, 이런 세계란 한량없고 가없을 뿐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큰 보살들의 무리에 이르셨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이 여러 세계의 작은 티끌이 묻었거나 안 묻었거나, 그 모든 땅을 티끌로 만들어 티끌 하나를 한 겁으로 친다 해도, 내가 성불한 지는 다시 이보다 더해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겁이니라."

〈법화경〉 28품 중 후반부인 15품부터 28품까지의 본문(本門) 법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이 '여래수량품'이다. 이 품에 '부처님이 언제 성불했나?'에 대해 부처님이 직접 밝히는 말이 있다. 부처님과 미륵보살이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면서 '믿고 바로 알라' 하고 '믿고 받들겠다' 하면서 부처님의 성불에 대해 말한다. 천상과 인간, 아수라의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삼도중생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석가족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되었느니라.' 법신으로 의인화된 부처님이 인간 석가모니의 깨달음 이전에 본래 깨달음의 부처로 있었다는 말이다. 이를 '구원실성(久遠實成)'이라 하는데 〈법화경〉의 중심사상이다. 싯다르타로 태어나 출가하여 보리수 아래서 도를 이룬 인간 석가모니는 화생(化生)한 몸인 화신불일 뿐 부처의 본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 품에서 부처님의 수명(壽命)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사적 부처님의 성불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정토신앙의 아미타불을 무량수(無量壽)라고 하듯이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무량수의 참뜻을 알아야 불법을 아는 것이며 일승(一乘)의 실교(實敎) 법문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승경으로 간주하는 〈아함경〉 등에서도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이전에도 법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법은 역사적 사실로 어느 시점을 기하여 시간적으로 그 자체 존재를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는 신앙이며 불교는 법, 곧 진리에 대한 신앙이다. 인간은 역사에 의하여 역습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신앙 정서가 파괴되어 진리에 나아가는, 또는 불교의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수가 생길 수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대승 보살로서의 자질 갖추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⑭ 율의계와 섭선법계

동아시아불교에서는 대승보살계인 삼취정계(三聚淨戒) 가운데 섭중생계(攝衆生戒) 또는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를 중시한다. 반면에 율의계(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물론 대승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 마음가짐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이타적인 동기가 이타적인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승 보살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설령 그 자질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율의계와 섭선법계를 잘 알아야 한다.

율의계는 섭율의계(攝律儀戒)라고도 하는데, 모든 악을 끊기 위해 금계(禁戒)를 지키는 것이다. '유가론'에 의하면, 보살의 율의계는 일곱 부류의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를 수용하는 것이다. 즉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 재가의 남성 신자, 재가의 여성 신자들의 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보살계 안으로 부파불교의 칠중계(七衆戒)인 비구계, 비구니계, 식차마나계, 사미계, 사미니계, 우바새계, 우바이계를 포섭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율의계에서는 칠중계의 형식적인 면을 비판한 것이지, 칠중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가론'을 비롯한 중기 대승 경론에서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데 재가 보살보다 출가 보살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생활방책으로 출가하는 것보다 의향의 청정성에서 출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모든 보살은 율의계에 머물러 자신의 과실과 허물에 관해 생각하고, 다른 이의 과실과 허물을 엿보지 않는다. 계를 범하는 중생들에 대해서도 분노심과 증오심이 없으며, 그들에게 대연민심을 품어서 널리 이익되게 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섭선법계는 10가지 선한 행위를 포함한 모든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유가론'에 의하면, 보살은 율의계를 받은 후에 대보리(大菩提)를 위하여 신체와 말을 통해 어떤 것이든 선을 적집(積集)한다. 구체적으로 보살은 신체와 말과 뜻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선을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회향하며, 그는 적시에 다양한 서원과 일체 종류의 광대한 삼보(三寶)에 공양을 올리며, 그는 항상 선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용맹정진하면서 방일하지 않는다. 요컨대 온갖 종류의 선법(善法)의 획득과 보호와 증장을 위한 계가 바로 섭선법계이다.

섭선법계에 머무는 보살은 5가지를 용인하지 않는다. 첫째는 신체와 재물에 관한 의존성이며, 둘째는 모든 악한 계로부터 생겨난 분노와 원한 등의 번뇌와 수번뇌(隨煩惱)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일으켰던 증오와 분노의 적대적인 마음이며, 넷째는 이미 생겨난 나태와 게으름이며, 다섯째는 이미 생겨난 집중 상태에 대한 탐착과 집중 상태에서 나오는 번뇌이다.

또 보살은 선한 결과의 유익함을 여실하게 잘 알며, 선한 원인과 선한 결과에 관하여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과 선의 포섭에 대한 장애를 여실하게 안다. 보살은 선한 결과를 공덕으로 본 후에 선을 포섭하기 위하여 선한 원인을 추구하며,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을 여실하게 안다. 보살은 선의 결과를 획득한 후에 무상(無常), 고통, 청정하지 않음, 무아(無我)를 여실하게 알고서 선의 포섭에 대한 방해를 버린다. 보살은 10가지 측면에 의해 선법을 포괄하는 계에 안주하여 신속하게 선을 포섭하고 모든 측면을 포섭하게 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㉔ 불교와 힌두

고대 힌두적 사회관습이 끼친 영향

이슬람이 인도 땅에 들어왔을 때 일부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를 고려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경우가 있었다. 주로 힌두교의 하층민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도 땅에서 자리 잡은 이슬람 공동체 내에는 중세부터 현재까지도 인도식의 계급적 문화와 위계가 존재한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힌두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도의 사회적 토양에서 새로운 인도-이슬람의 계급 사회가 등장한 것이다. 이슬람이 인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인도가 이슬람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종교사회의 변이를 우리는 초기 불교의 국면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석가모니 당시 설정되었던 많은 승가의 규정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시간이 흐를수록 재가자들의 힌두적인 사회규범이나 종교관습에 따라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재가사회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문 종교들의 자기검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있는 사람이나 노예를 출가시키지 않았던 것이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고대 힌두의 율법 상 채무가 있는 사람이나 그 자식들은 채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빚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따라서 출가를 통해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자들을 무분별하게 출가시키는 일이 비난받았던 것이다. 노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산스크리트어 어근 das는 무엇인가를 써버리거나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노예를 뜻하는 단어 '다사(dasa)'가 등장한다. 고대인도 사회에서 노예는 가축이나 금과 같이 물물교환의 가치를 갖는 소유물의 하나였으며, 마치 물건과 같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없는 존재였다. 당연히 초기 불교교단에서는 이들의 출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만일 노예의 뜻대로 출가시킨다면 불교 승단이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고대 힌두적 사회관습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면서 불교승단은 율장의 계율들을 만들어 갔을까. 예를 들어 힌두사회의 계급적 관습은 어떠할까. 그것도 불교가 인정했을까.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당연히 불교는 사문의 종교이므로 사회적 계급이나 그에 의한 직업적 층위에 대한 편견 따위가 존재할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소 피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힌두 사회의 계급질서가 정(淨)과 오염(汚染)의 관념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순수-오염, 또는 깨끗함-더러움의 이념적 실천이 그대로 불교 교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 또는 죽음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 또는 이러한 일과 관련된 인물들은 힌두 사회에서 볼 때 종교적이며 계급적인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극단적인 오염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를 극단적으로 기피하게 된다. 그런데 불교는 이러한 힌두적인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화장터 등에서 고행을 하던 승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지(葬地)에 거주하며 죽은 자의 옷을 걸치는 승려가 사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또한 불탑에 예를 취해서도 안 된다. 굳이 불탑에 예배하고자 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없다. 그러한 승려는 승방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침구에 앉아서도 안 된다. 도반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안 되며, 바라문들이 모여 있는 자리나 사원을 찾아온 장자들에게 법을 설해서도 안 된다. 바라문이나 장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또한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은 고대 인도사회에서 흔히 대면하게 되는 '오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규정과 일치한다. 불교가 아니라 세속적인 힌두사회의 규범이 불교 교단의 계율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힌두교가 팽창한 고대 인도사회에서 불교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세속사회와의 적절한 타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끝〉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